

은행 불붙은 기업대출 확장경쟁... 건전성 과제

당국 가계대출 제동에 눈 돌려 5대은행 기업대출 8.6조 증가 월 증가폭 3조서 2배 이상 확대 과도한 경쟁에 건전성 악화 우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고삐를 당기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에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47조 489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5974억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잔액 618조849억원)이 5조4025억원, 대기업 대출(잔액 129조4044억원)이 3조1949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올해에만 43조8146억원



늘어났고, 월 증가폭도 연초 3조원대에서 7조~8조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전체 원화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 전년 말(49.6%) 대비로는 2.0%p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이 급증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한 달 만

에 1조5912억원 늘었고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8월 증가폭(1조5912억원)은 2021년 11월(2조3622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40년 만기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책상품 금리 역시 올렸고, 한도를 축소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규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당국 제재를 피해 기업금융을 통한 수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우량 자산 증대를 통한 1등 은행'을 목표로 대기업 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리은행 역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해 우리은행이 4년 후 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리딩뱅크 경쟁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하반기 기업대

출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실적에서도 기업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을 찾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아 걱정이 없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교적 우량한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늘릴 계획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실과 연체를 걱정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퇴직연금 ETF 상품 출시. /삼성생명

삼성생명 펀드·주식 장점 담은 퇴직연금 상품 선택

삼성생명이 가입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모아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펀드투자자와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담았다는 설명이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이용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미래, KB, 한국투자 등 자산운용사의 112개 상장지수펀드 상품을 준비했다. ▲이차전지 ▲전기차 ▲헬스케어 등의 항목은 별도로 마련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 미래, KB, 한투 4개사의 상품가입시 선착순 400명에게 최대 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캐롯손해보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효일 대표이사 동참

캐롯손해보험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캐롯손해보험은 문효일 대표이사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손동작이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한다.

그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지금까지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배우박은빈 등이 참여했다. 문효일 대표는 앞서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한라이프 전 임직원 자발적 참여 빛나는 한걸음 캠페인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취약계층과의 상생에 나섰다.

◆ 취약계층 장애인 위한 휠체어 기부

신한라이프는 '빛나는 한걸음 캠페인 II'를 내달 10월 13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기간 내 5000만보를 달성할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50대의 휠체어를 기부한다. 이어 서울시 양천구 관내 약 400명 부지에 '빛나는 숲 3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산 기자

손해율 안정에 흑자 행진 車보험료 인하 기대감 쑥

상반기 車 보험손익 5559억 집계 손해율도 전년동기비 0.9%p ↓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올 상반기 자동차 보험의 손익이 큰 폭의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데다 손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손익은 5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06억원 감소했지만 지난 2021년 이후 큰 폭의 흑자 기조가 지속됐다.

손해율은 78.0%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엔데믹 이후 이동량이 늘면서 손해율이 소폭 높아졌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는 손해율이 각각 87.7%, 84.5%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평년에 비해 특히 낮았다"며 "이를 감안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율은 16.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은 94.2%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6385억원으로 가입대수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54억원 증가했다.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과점 구조는 심화됐다.

대형사인 삼성·현대·KB·DB의 시장 점유율이 85.2%에 달했으며, 대형사를 제외한 8개사 중 온라인전업사인 캐롯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높아졌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면 50.1%로 전년 동기 대비 2.3%p 하락한 반면 사이버마케팅(CM)은 33.5%로 2.3%p 상승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영업실적을 기초로 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t@

우리銀, '핀다'에 개인 신용대출상품 입점

핀다와 제휴, 비대면 채널·상품 확대

우리은행은 대출비교플랫폼 '핀다'에 우리은행 대표 개인 신용대출상품이 입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핀다 대출비교서비스'에 입점하는 상품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새희망플러스 II',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플러스 II)' 총 3종이며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 대상 폭을 넓혔다.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플러스 II)'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재직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연 5.0%의 확정금리로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핀다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도 입점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입점하는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은 6개월 이상 재직,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출시한 대환대출 전용 신상품이다. /이승용 기자

Sh수협銀,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 본격화

'Sh수퍼골드클럽' 운영 시작

Sh수협은행이 프라이빗 बैं킹(PB) 서비스를 시작했다.

Sh수협은행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인 'Sh수퍼골드클럽' 운영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 시작 기념 우수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서울지역 우수고객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Sh수퍼골드클럽 서비스 시행을 위해 2명의 PB지점장을 선발했다. 서울 양재와 압구정 두 곳에 전담지점을 마련했다. 은행내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해 '주니어PB'로 육성한다. 'VVIP'고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Sh수퍼골드클럽' 행사에서 포부 및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

객을 위한 전담 고객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 행장은 "이제 본격적인 PB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고객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상반기 자영업 중심 관계형 금융 15.3조 ↑

중소법인 대출 10.5조, 68.6% 차지 신한·기업은행, 비중·공급액 우수

관계형금융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관계형금융 잔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3% 늘었다. 90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차주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10조 5000억원으로 68.6%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원이나 늘면서 관계형 금융의 성장세를 주도했다.

평균금리는 4.91%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0.62%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중기대출 금리 평균인 5.28%보다는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26%p 상승한 0.5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위주로 자금이 공급됐다. 도·소매업이 32.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25.1%)과 서비스업(18.2%)이 그 뒤를 이었다.

관계형금융 우수 은행은 대형 그룹에서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누적 공급금액과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신용대출 비중 등이 우수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비중 등은 다소 저조했지만 누적 공급금액 및 공급 증가율, 컨설팅 실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형 그룹에서는 대구은행이 1위, 광주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형금융의 공급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